



### 한돈협회 남원지부, 돈육 선물세트 기탁

남원시는 7일, 설을 맞아 (사)대한한돈협회 남원시지부에서 돈육 선물세트 85박스(환가액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지부는 매년 명절 때마다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전달되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고 있으며, 전달식에는 소시호 지부장 이강영 총무, 김미소 사무장이 참석한 가운데 물품 전달식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소시호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해왔다.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겠다”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매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애쓰시는 대한한돈협회 남원시지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군, 설 앞두고 나눔과 기부 릴레이 훈훈

설 연휴를 앞두고 무주군에서는 나눔과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적성면 조리미동에서는 지난 7일 조리꽁꽁축제에서 나온 수익금 1백 6만 6천 원을 기탁했다.

이병수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리꽁꽁축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게 돼 기쁘다”라며 “마을을 대표하고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에 즐길만한 축제,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조리미들이 되기 위해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송영곤 위원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위원들이 수당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라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설 명절을 보다 따뜻하게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무주양수발전소에서 백미 2백 포대(1포대 10kg)를 무주읍환경미화원 14명에게 전달해달라며 사과 14상자(상자 5kg)도 함께 기증해 훈훈함을 전했다.

이날 무주읍을 찾았던 조수남 소장은 “설 명절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쌀과 사과가 희망과 용기를 함께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수원(주) 양수발전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주민们 삶을 헤아리며 동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세아베스틸, 군산시에 백미 10kg 650포 성품기탁

군산시는 (주)세아베스틸(대표이사 김철희, 신상호)이 지난 7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백미 10kg 650포(1,755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품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회사의 기부금 전 임직원의 급여 일부분과 희망 나눔 모금액으로 마련되었으며 전북시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되어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지원될 계획이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염성곤 노조위원장은 “민족 대명절 설날에 외로이 혼자 계시거나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이웃에게 전달되어 훈훈한 명절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오병길 지원본부장은 “소외된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해 회사와 시원들에게 한마음으로 준비하여 앞으로도 꾸준한 기부를 통해 지역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단다”라고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잊지 않고 찾아주는 세아베스틸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절 훈훈한 은정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재활의료장비 무료 대여 ‘호평’

남원시보건소, 휠체어 등 89점… 3개월 혹은 필요 따라 연장 가능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활의료장비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대여해 주며 호평받고 있다.

대여 가능한 장비는 휠체어, 워커, 목발, U자형 워커 4종 등 89점으로 특히 보건소는 재활의료장비 성능 및 안전성을 재정비하는 한편, 휠체어 5대와 신규 장비인 U자형 워커 3대를 추가 구입했다.

대여는 남원시민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기간은 3개월이나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며, 작년의 경우 휠체어 137명, 워커 17명, 목발 13명, 지팡이 2명 등 총 169명에게 대여하였고 꾸준한 홍보로 이용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여가 필요한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재활운동실(620-7755)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최민자 치매안심과장은 “앞으로도 재활의료장비 대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장비는 꼼꼼히



조사하고 관리해 필요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완주군의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지난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6곳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위문 방문은 서남용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남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용진노인복지센터 △소양 예수재활원 △삼례 행복한집 △삼례 원주지역자활센터 나누는사립들 △봉동 다함께노인 주간보호센터 △고산 푸른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준비한 각종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

또한 참석자들은 노인요양시설, 재활센터 등 이용자들이 시설 이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전북자치도 원미옥 주무관, 2023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대통령 표창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수질개선과 원미옥 주무관이 기업의 혁신과 청의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유공을 인정받아 행안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원미옥 주무관은 전국 최초 소풍을 재생에너지 고체연료 품질기준인 밸류량 및 수분 등에 적합한 공공형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분 고체연료 제조공정에 협운 우분 100%에서 구제특례에 우분 50%이상과 롬밥 등 보조원료 50%미만 혼합이 가능하도록 구제특례를 추진했다.

우분 고체연료사업은 지난 2020년 새민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저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 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전북자치도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규

제애로를 청취하고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원순환센터 등 관계기관과 30회 민·관 소통하며, 운영개선 및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축산농기가 하용된 50%미만 보조원료 외 폐기물 혼합으로 불법처리 우려 등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와 조율해 온 끝에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산업용화학진반에 따른 규제특례 승인 이후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며 사업 시행 시 새민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1일 650톤의 우분을 활용해 새민금 수질개선과 1일 163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해지고,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국최초 민·관 협업 공공형 소풍 연료화사업 생태계 구축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정부혁신 우수과제, 공무원직접수행용역 평가결과 우분 고체연료화 품질향상 연구과제가 우수과제에 선정됐고, 2023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포함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원미옥 주무관은 “시·군 사업추진 애로사항과 축산농가의 축분차리 어려움을 인식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산림조합,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산림조합(조합장 함길권)이 7일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리며 5백만원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산림조합은 지난 1994년 설립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건강한 숲 조성과 산림소득 증가를 목표로 임업 기술지도와 임업 정책자금을 관리·운용하고 조합원의 임산물을 생산을 지원하는 등 임업 발전의 주역이 되고자 노력하는 성실한 조합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설 명절 앞두고 정읍시에 기부 잇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정읍시에서 기부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7일 태인면은 설 명절 현금지정기탁금 1180만원을 47개 마을 65가구에 20만원씩 지원했다. 기탁금은 주민과 기업 등이 기부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됐다.

같은 날, 고부면 행정복지센터와 고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구석)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 150세대에 865만원 상당의 식품 구리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중심으로 44개 마을 이장들이 각 마을의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해 식품구리미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품구리미는 소고기와 미역, 곱탕 과일 등 6종으로 구성됐다.

덕천농장(대표 안대용)도 덕천면사무소(면장 김영덕)를 찾아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백미(10kg) 108포(322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백미는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덕천면사무소는 전북시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20가구에게 1가구당 10만원의 상자봉사를 지원하기

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정읍 연지사무소를금고(이시장 유연천)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20kg 100포(550만원 상당)를 연지동에 기탁으며, 신태안중학교(교사 김용균)에서도 지역 내 어려운 저소득계층 가구를 위해 라면 150박스를 신태안중학교를 전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남원 주천면 지사협, 취약계층에 사랑의 구리미 전달

남원시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근)은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30가구에 사랑의 구리미를 전달하였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지원금을 활용, 관내 소외계층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떡국떡, 과일,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명절 구리미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직접 명절 구리미를 전달함으로써 함께 사는 소속감을 증진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나눔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지원금을 활용, 관내 소외계층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떡국떡, 과일,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명절 구리미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직접 명절 구리미를 전달함으로써 함께 사는 소속감을 증진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나눔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김영근 위원장은 “설을 맞이해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계농협 농가주부모임, 경로당 밀가루나눔 전개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과 농가주부모임 산울림(회장 양서기)은 6일(화) 농한기를 맞아 마을경로당에 모여계신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한 밀가루(600kg 상당)를 계남면 29개 영농회를 방문하여 나눔활동을 전개했다.

양서기 회장(농주부 산울림)은 “농한기 시장방인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흙��어신들의 안부를 묻고 나눔활동도 함께 펼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며, “회원들의 온기나눔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곽점용 조합장(장계농협)은 “마을의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운겨울 온기를 나누는 마을경로당에 농가주부모임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지니, 웃음꽃만 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계=고관호 기자